

지역 소식통

고창 판소리전수관, 상설국악교실

고창군(군수 박우정) 판소리전수관이 전통문화의 멋과 흥을 군민들이 보다 가까이에서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상설국악교실'을 호응 속에 운영하고 있다.

올해 국악교실은 판소리반, 가야금반, 고법·장단반, 대금·단소반 농악반, 한국무용반 을 운영하고 있다.

6개 과정이 개설된 국악교실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주 3회 오후 3시, 4시, 5시, 7시에 수업이 이뤄지며 초등학교생부터 일반인까지 희망하는 군민은 누구나 배울 수 있다.

국악교실 수강료는 성인 월 1만원, 학생 5천원이며, 국악교실 참여를 희망하거나 더 궁금한 사항은 고창군 문화관광과 (063-560-8065)으로 연락하면 자세히 알 수 있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시보건소, 6월 말까지 한방뱃살빼기 프로그램 운영

정읍시보건소가 모든 성인병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는 비만에 대해 한의약력으로 접근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을 꾀하고 있다.

보건소는 이달 7일부터 6월 말까지 운동 부족과 잘못된 식습관으로 당뇨와 고혈압, 심장질환 등에 걸릴 확률이 높은 고도 비만자 40명을 대상으로 한방 뱃살빼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한의약력 비만 관리 교육과 함께 영양교육, 체지방 감량을 위한 근력 강화운동 등 전문 강사의 체계적인 운동지도와 함께 한방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의 자신감과 자가 건강 관리 능력을 높임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 주산파출소, 농기계 교통사고 빈집절도 예방 '총력'

부안경찰서 주산파출소는 관내 각 마을에 대해 농번기 철 농기계 교통사고 및 빈집절도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산파출소는 이상원소장을 비롯하여 경찰관들이 각 마을을 방문하여 농번기철에 늘어날 것으로 예상 되는 농기계 교통사고와 보행시 주의사항, 오토바이 안전모 착용방법을 숙시시켜주고 있다.

특히 농번기 철 빈집을 노리는 절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예방 홍보를 하였고, 농기계에 아광 반 사자를 부착해 주는 등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앞장섰다.

/부안=이옥수기자

부안군, 기후변화주간 행사 전개

22일 세계 지구의 날 맞아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운동 캠페인 벌이기로

부안군이 매년 4월 22일 세계 지구의 날을 맞아 저 탄소 녹색생활 실천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군민들의 동참을 유도하려고 제9회 기후변화주간 행사를 펼친다

세계 지구의 날은 1969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발생한 원유 유출사고를 계기로 1969년 4월 22일 미국 상원의원 게이 로드 닐슨과 하버드대학생 데 니스 헤이즈를 중심으로 처음 시작됐다

세계 지구의 날인 오는 22일 세계 지구의 날 기념 각 가정 등 10분 간 불끄기 행사와 저 탄소 녹색생활 실천운동 캠페인 등이 전개된다.

이를 위해 부안군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가정에서 당일 오후 8시부터 8시 10분까지 10분 간 불끄기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체 교육과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홍보했다

이와 함께 변산사중학교에서는 오는 21일 등굣길에 '지구야~ 우리가 지켜줄게'라는 주제로 저 탄소 녹색생활 실천운동 캠페인을 진행한다.

한편 부안군 관계자는 "전등 하나 끄는 것만으로도 지구의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며 "지구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우리 미래세대와 공감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주간 행사에 많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다"고 강조했다.

정읍·고창·부안 응급진료체계구축사업 관계기관 운영회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설명 등 주요사항 논의

정읍·고창·부안 3개 시·군 지역 광역 응급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골든타임 사수' 서남부권 광역 응급진료체계구축사업(이하 서남부권 응급진료체계구축사업)과 관련한 관계기관 간 운영회의가 열렸다

지난 17일 정읍시보건소 3층 보건교육실에서 열린 회의에는 정읍시와 고창군 부안군, 정읍시병원, 전북과 현대 등 관계기관 담당자가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3개 시·군이 추진하고 있는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응급처치와 심폐 소생술 지역별 전담 교수진 소개, 순회 방문진료 사업 추진 과정 협의, 행복지킴이와 생명지킴이 대상자 선정 방안 등 사업 추진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 사업은 긴박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고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른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시스템이 갖춰지기 위한 사업이다.

주요 사업내용은 거동이 주민들을 위해 3시·군의 각 읍면동 거점지역을 순회 방문해 진료하고 마을이장 중심의 응급의료 도우미 제도가 시행되며 주민들의 응급처치 역량 강화

방문진료 사업 추진 과정 협의, 행복지킴이와 생명지킴이 대상자 선정 방안 등 사업 추진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 사업은 긴박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고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른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시스템이 갖춰지기 위한 사업이다.

주요 사업내용은 거동이 주민들을 위해 3시·군의 각 읍면동 거점지역을 순회 방문해 진료하고 마을이장 중심의 응급의료 도우미 제도가 시행되며 주민들의 응급처치 역량 강화

를 위한 교육도 진행된다.

특히 최종적으로 지정 응급의료기관인 정읍시병원을 응급의료센터로 승격을 추진함으로써 병원의 질적, 양적 수준을 끌어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김생기 시장은 "정읍과 고창 부안은 노인 인구가 많고 목거노인 비율이 높아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이 절실한 지역이나 생활권 내 응급의료센터 부재로 응급환자 진료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하러갈 지역 특성에 맞는 최적의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통해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김생기 정읍시장, 주요 사업장 방문 현장행정

김생기 시장이 본격적인 현장 행보에 나섰다.

김 시장은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주요 사업장을 방문해 '직접 보고 듣고 살피는 현장행정'을 펼쳤다

김 시장은 "본격적인 사업추진 시기에 맞춰 주요 사업장을 직접 찾아 현장을 확인하고 추진 상 문제점과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고,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현장행정에 나섰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지역문화예술의 거점이 될 연지아트홀 건립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축터카널 개설 ▲부전지구 생활환경 정비 ▲내장상동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작은말고개 도로 개설 ▲내장산유스호스텔 대행 복구 현장 ▲백제야오 정읍사 관광지 조성 ▲철보 동진강 수변 힐터 조성 ▲태인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북부권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등 10개 주요 사업장을 방문했다.

김 시장은 지역문화예술의 거점이 될 연지아트홀 건립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축터카널 개설 ▲부전지구 생활환경 정비 ▲내장상동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작은말고개 도로 개설 ▲내장산유스호스텔 대행 복구 현장 ▲백제야오 정읍사 관광지 조성 ▲철보 동진강 수변 힐터 조성 ▲태인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북부권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등 10개 주요 사업장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김 시장은 각 사업장의 진행 상황과 향후 추진 계획을 보고

받은 후 현장 관련 시설을 일일이 살펴보고 최상의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사업 부서장과 관할 읍면동장, 공사 관계자, 시민들과 함께 격의 없는 토론과 의견을 나눴다

김 시장은 "해당 사업장별 공정들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적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해줄 것"을 관계자들에게 지시했다.

특히 사업장에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애로사항 등에 대해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 사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에도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 복분자 선연·황토배기 멜론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선정

고창군의 명품 농특산물 '고창 복분자 선연'과 '고창 황토배기 멜론'이 2017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에 선정됐다.

군은 1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고창 복분자 선연'이 7년 연속 '고창 황토배기 멜론'은 올해 처음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이날 전했다

이 상은 동아닷컴, 한경닷컴, MBC가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동아일보, 한국경제가 후원하며 소비자들이 직접 조사에 참여한 인터넷 소비자조사와 전문평가위원 심사를 진행해 고창군이 복분자, 멜론 부문 대상에 최종 선정됐다.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고창군에서 생산되는 '고창 복분자 선연'과 '고창 황토배기 멜론'은 미세

랄이 풍부한 황토, 서해안 해풍, 높은 일교차 등 농산물 재배에 최적의 환경에서 최고 품질의 농산물을 만들어내기 위한 농가들의 땀방울이 보태져 생산된다.

전국 최고의 복분자 생산지인 고창군은 2004년 복분자 산업특구로 지정된 이후 4200여 농가에서 매년 전국 복분자 생산량의 30%가량인 3100톤을 생산해 오고 있다.

'고창 복분자 선연'은 당도, 유효성분 함 등이 타 지역보다 뛰어나며 많은 항산화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피부노화방지, 육체피로 회복, 혈관질환 개선에 도움을 준다.

'고창 황토배기 멜론'은 높은 당도와 풍부한 향 등 그 우수성을 해외시장에서도 인정받아 홍콩에 수출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최고 품질 멜론으로 입지를 다지고 있다

고창=김영식기자

단풍미인쇼핑몰, 5월 가정의달 이벤트 운영

정읍시에서 지역하고 있는 농·특산물 온라인 마켓 1번지인 단풍미인쇼핑몰에서 5월 가정의 달 이벤트를 운영한다

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평상시 바쁜 일상에 쫓겨 있고 지내온 고마운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5월 기념일에 맞춰 건강한 우리 먹거리를 꾸러미로 구성하여 판매한다"고 밝혔다

가정의 달 이벤트는 '오! 릴레이 페스티벌'로, 5월 한 달 동안 운영된다. 입점 업체 상품 2~3가지로 9개의 꾸러미 세트를 구성, 1만9000원부터 32000원까지의 가격대로 판매한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시작으로 5일 어린이날, 8일 어버이날은 4월 26일까지 예약주문을 받아 4월 27일에 일괄배송한다.

15일 스승의날은 10일까지 예약주문

을 받아 11일 일괄배송하고, 21일 부부의 날은 17일까지 예약주문을 받아 18일 일괄배송할 예정이다.

단풍미인쇼핑몰에 입점한 상품은 품질과 포장면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지역특산품이다.

상품주문은 '단풍미인쇼핑몰'(http://danpoongmall.jongup.go.kr)로 접속하거나 수신자 무료전화(☎080-535-4345), 063-532-4345 또는 스마트폰(m.danpoongmall.com)으로도 가능하다.

한편 2012년 1월 9일에 오픈하여 올해로 6주년을 맞이한 단풍미인쇼핑몰은 그동안 40여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현재 104개 입점업체와 800여개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고, 온·오프라인 홍보 마케팅 활동을 통해 지자체 운영 농특산물 소령 1번지로서의 명성을 지켜가고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Advertisement for Gangsanmyeongju Mulberry Wine, featuring product images, descriptions, and gift sets.